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목요일 저녁미사 후(대건회관)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교리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항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40			



[제 1독서] 탈출 3, 1-8ㄱ, 13-15
 [화답송] 시편 103(102), 1-2, 3-4, 6-7, 8과 11(◎ 8ㄱ)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기록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네.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
 [제 2독서] 1코린 10, 1-6, 10-12
 [복음 환호송] 마태 4, 17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
 [복음] 루카 13, 1-9

성가	8시 미사 11시 미사	입당 115 입당 117	봉헌 340 봉헌 217 218	성체 168 성체 153 182	파견 280 파견 280
----	-----------------	------------------	----------------------	----------------------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사순 제 3주일(3월 3일)		사순 제 4주일(3월 10일)		사순 제 5주일(3월 17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스텔라(애리)	이엘리사벳(자영)	김글라라(순희)	조레지나(선덕)	김안토니오(휘)	이마리크레센시아
제 1 독서	이바오로(명국)	허라우렌시오(순구)	강요한(신호)	이안드레아(영길)	김안드레아(찬곤)	이요한(세호)
제 2 독서	김안젤라(영선)	허파비올라(옥진)	정스텔라(애리)	김테레사(승희)	김글라라(순희)	이골롬바(정연)

보편지향기도

오늘의 강론

참된 뉘우침을 허락하소서.

지난주에는 이집트에서 열기구를 타고 관광에 나섰던 20여명의 사람들이 갑작스런 공중폭발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닐 겁니다. 정밀조사를 해보면 곧 밝혀질 것이지만 아마 정비 불량이거나 갑작스런 기류변화로 인한 사고일 확률이 큼니다. 유대인들은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불행을 겪을 때, 그것을 곧 천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 의하면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래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루카13,1) 알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그 갈릴래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래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루카13,2-3) 라고 말씀하시며, 곧 이어서 실로암 탑에 깔려죽은 열여덟 사람을 재차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회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운명이 바뀌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한치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사는 우리가 자신의 재산과 재능, 권력만을 믿고, 자신에게는 결코 아무런 불행도 닥치지 않을 것처럼 산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살아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그 분께 의지하여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1코린10,12)하라고 강력하게 충고하십니

다.

사순 시기는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를 회개로 이끌어줍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기도 생활에 소홀했으며,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했으며, 교우들에게 친절하지 못했으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했고...” 등등 수많은 잘못과 소홀한 일들이 뉘우쳐집니다. 오늘 복음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포도원 재배인의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한그루 심고 3년을 기다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무화과나무를 잘라버리라고 명하지만 포도원 재배인은 “주인님, 이 나무를 울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돌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라고 간청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사순시기를 통해 또다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참된 뉘우침을 허락하소서."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주일학교 소식

1. 3월 3일(오늘)

- 주일학교 11시
- 영어미사 12시 반(Fr. Arjen Tete, SJ)
- 영어미사 후 청소년부 확대 월례회의(임원, 주일학교 전 교사, 주임 신부님 참석)

2. 교사 소개 : Stephanie Byun 선생님(3rdgrade)

My name is Stephanie Byun and I am currently a junior at UC Berkeley majoring in nutritional sciences and public health. I have been attending St. Andrew Kim since the third grade and am extremely excited to come back as a Sunday school teacher to teach 3rd/4th grade this year. I am very honored and blessed to be given the chance to share my faith with the students. I have always looked up to my own Sunday school teachers and I hope to become a good spiritual role model as well. With all this said, I look forward to an amazing year!

3. 피정 및 외부 행사

- **High School** : Oakland교구 청소년 행사 안내
 - i. 행사명 : Ignite the Fire of Faith - Youth Day 2013
 - ii. 일시 : 2013년 3월 16일(토요일), 10am - 5 pm
 - iii. 장소 : Bishop O'Dowd H.S., 9500 Stearns Ave., Oakland, CA
 - iv. 참가비 : \$25/명: 청소년부에서 \$15/명 지원
- **High School lock-in** : 4/20~4/21, 성당 교육관,
 - i. 내용 : 추후 공지
 - ii. 기존 3/9~10에서 미뤄졌습니다.

4. 주일학교 고해성사(영어)

- 3월 17일 주일 주일학교 수업 시간 중(11~12시)
- 영어미사를 주관해 주시는 Arjen 신부님께서 성사를 주십니다.

5. 부활절 맞이 주일학교 행사

- 3/30(토요일) 오후 1시
- 대상 : 주일학교 전 학생 - 내용 : 추후 공지

6. 영어미사 독서자 모집(1~8학년)

- 1학년에서 5학년 사이의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청서

생명의 말씀

돌아오라, 집으로!

사순 시기가 되면 ‘회개’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구약의 예언자도 한목소리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회개란 ‘악에서 돌아서서 하느님께로 향해가는 것’ 입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 에서 둘째 아들처럼 집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루카 15,11-32 참조)

하느님 아버지의 품은 우리 모두의 영적 고향입니다. 명절 때면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교통 체증을 감수하면서도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향은 부모님이 계신 곳이고, 부모님의 품은 푸근하고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고향인 하느님의 품은 상상을 넘어설 만큼 따뜻하고 푸근합니다. 제1독서가 말해주듯이 하느님은 당신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 그들이 겪는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구하러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느님은 우리의 아픔을 속속들이 잘 아시고 감싸안아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품 안에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란 말이 있듯이 하느님의 품을 벗어나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 보면 결국 고생길로 접어듭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 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곳에 가서 제멋대로 살았지만, 그 끝은 지독한 고생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이런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하느님의 품 안에 머물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좁은 생각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 (1요한 3,20)입니다.

놓고 이런저런 기대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투덜거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2독서)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주려고 사과를 꺾는데, 아이는 사과보다는 사과를 꺾는 칼이 신기해서 그것을 달라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도 잘못된 생각에서 하느님께 그릇된 기대를 하면서 떼를 쓰기 일쑤입니다.

좁은 생각의 틀을 넘어서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마태 7,11 참조)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나의 길에 험한 산을 치워주시지는 않지만 그 산을 넘어갈 힘을 주시는 분, 내 앞에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지는 않지만 그것을 내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진정 든든한 아버지이시고, 그분의 품은 참된 고향입니다. 1990년대 후반, 최고의 아이돌 그룹의 노래 ‘Come Back Home’ (돌아오라, 집으로)가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집으로 돌아온 가출 청소년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느님은 영적으로 가출 청소년과 같은 우리를 애타게 부르십니다. ‘내 아들 딸들아, 돌아오너라, 집으로!’

손희송 베네딕도 신부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3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일반: 자연 존중
모든 창조물은 인간의 책임에 맡겨진 하느님의 작품임을 깨달아 모든 사람이 자연을 더 존중하도록 기도합니다.

선교: 성직자
주교, 사제, 부제들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끊임 없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말씀의 향기

길가의 하느님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공동 번역 마태 25,40)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을 주님이라 생각하며 대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거리의 노숙자들과 부랑자들이 주님이라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저 불쌍하다고 생각하며 동전을 던져주는 것으로 할 바를 다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전 일본에서 만난 재일교포 의사 선생님은 다르셨습니다. 생애 첫 해외여행으로 만화왕국 일본을 택한 저는 재일교포 기자 분으로부터 어떤 분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신주쿠의 뒷골목 작은 병원에서 만난 그분은 제주도 출신의 의사였습니다.

병원엔 웃으며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무료 환자들로 가득했지만, 계산을 하는 곳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 없는 재일교포, 외국인 불법체류자, 일본술집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성들...,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 그들은 모두 그 선생님께 치료를 받고 허리 숙여 인사하는 것으로 치료비를 대신했습니다.

어떻게 병원을 운영하느냐고 선생님께 물었더니,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한테서는 받으니까 걱정 마.” 그러나 아무리 병원을 둘러봐도 부자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제 몸 상태까지 봐주시고, 물론 공짜로 치료까지 해주셨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당시 일본에서 가장 싼 포장마차의 닭 날개 튀김조차 못 먹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포장마차주인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돈을 지불하셨고, 구두땀이 가게 앞에 놓여있는 여성 하이힐을 보고 “저들이 모두 너보다 어린 한국인 여성이다. 네가 작가라면 그들의 아픈 마음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가슴 아프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길가에서 몸이 아파 움직이지 못하는 부랑자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자신의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분은 신자도 아니었고, 마태오 복음은 알지도 못

하지만 그분을 통해서 주님을 본 저는 아주 오랫동안 그 의사선생님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난한 이들을 도와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분을 통해 저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는 길가의 힘든 분들을 보면 그 의사선생님과 함께 주님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위한 일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어 늘 가슴에 빛을 진 기분입니다. 이제는 그분을 통해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진정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저 한 달에 얼마씩 재단에 기부하는 정도는 아닐 것 같아서 말입니다.

황미나 아가다
만화가

3월의 성인

요세, 알비노, 다비드, 다윗, 아네스, 가롤로, 마리노,
아르텔라, 가시미로, 루치오, 바시노, 로메오,
아드리아, 콜레타, 요르단, 프란체스카 로마나,
그레고리오, 가타리나, 골롬바,
아나스타시아, 빠드리시아,
베르나르도, 마틸다, 레오, 루이사, 로베르토,
살바토레, 레아, 니콜라오, 펠릭스, 디에고,
루베루포, 리디아, 벤자민, 요안나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수는 없었나요?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어느 누가 죽음을 원하겠습니까? 생명이 추구하는 것은 기쁨과 행복이고, 그 생명을 지키고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삶의 과제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후 인간에게 맡기며 잘 관리하기를 바라셨습니다.(창세 1,27-30 참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인간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그 특권은 박탈되었고 인간은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낙원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할 인간은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생각해도 그 안타까움과 쓸쓸함이 마음 아프게 하는데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보실 때에는 어떠셨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느님께서서는 인간 구원을 위해 위대한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상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내려주십니다.(탈출 20,1-17 참조)

그것은 역사를 통해 하느님의 초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낙원으로 초대받을 수 있는 지침서인 율법을 받고도 인간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면서, 마시고 취하며 하느님을 외면합니다.

그럼에도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계명(율법)을 지키도록 수많은 예언자와 계시를 통해 계속 알려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민족 역시 “하느님이 주신 율법을 사랑하여 그 문자뿐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전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가톨릭교회교리서 579항)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에게 소중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명의 근본정신은 퇴색되어 사라지고, 그 법은 인간을 옳아매는 또 다른 사슬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서는 마지막 방법을 택하십니다. “당신께서 친히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손으로 일하시고, 인간의 정신으로 생각하시고, 인간의 의지로 행동하시고, 인간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까지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470항 참조)

태초부터 준비하신 그 낙원에 초대하기 위해 하느님께서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셨습니다.”(2코린 5,2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바치는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하느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수난과 죽음까지도 겪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은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인간 구원의 길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한 3,16)

※ 참고: 가톨릭교회교리서 464-474, 571-614

사목국 연구실

날짜	지 향	봉 헌 자	지난주 우리의 정성				
3월 3일 주일	연 김중화	정대레사(혜경)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연 정벤자민(대업)	정대레사(혜경)	미사참석인원	84	218	44	346
	연 이성원	정대레사(혜경)	헌 금	\$495	\$1,207	\$49.05	\$1,751.05
	연 정아네스	가족	< 교무금 > \$3,820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가족	배짊마(1-2) 허수원(1-2) 김옥(1-12) 채용분(3)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구아릭스(천남)	임계분(1-5) 양인심(1-2) 박일환(2) 이창용(1-2)				
	연 서라이문도	서대레사	석흥기(2) 육승주(2) 최몽렬(2) 김종성(1-2)				
	연 서라이문도	임루시아	김영희(3) 이건용(3) 이순열(1-2) 김명환(1-2)				
	연 서라이문도	전안드레아/테레사	임희숙(1-2) 차영화(2) 이순자(1-2)				
	연 박돈보스코	박대레사	< 성소후원금 > \$30				
	연 김안나(복희)	박시몬/울리안나	채용분(3) 차영화(2)				
	생 이정우	전수산나	< Bishop's Appeal > -				
	생 양마르코/수산나	박대레사	< 초 봉헌 >				
	생 이마태오(영기)	서대레사	김병수 \$50 최진우 \$50 윤순의 \$100 김순이 \$100				
	생 이모니카	서대레사	< 감사 헌금 > 기타동호회 \$120				
	생 임안젤라 생일	김대레사	* 서춘애 데레사 가정에서 선종봉사회에 \$300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3월 5일 화	연 최베드로(취종)	가족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연 서라이문도	서대레사					
3월 6일 수	연 부모님	이바오로					
	연 서라이문도	영원한도움의어머니					
	생 조베네딕토(관식)	익명					
	생 허파울리나(재원)	허마리아					
	생 이카타리나(영순)	박헬레나					
3월 7일 목	연 본당선종연령	선종봉사회					
	연 서라이문도	서대레사					
	생 본당신부님	익명					
3월 8일 금	연 형제/자매	이바오로					
	연 서라이문도	서대레사					
	연 조요셉	자녀들					
	연 권알로이시오곤자가	김카타리나					
3월 9일 토	연 이베로니카	자녀					
	연 서라이문도	서대레사					
	연 이요한 기일	이막달레나(선희)					

	지난주	금 주	누 계
약정액	\$310,715.28	-	\$310,715.28
봉헌금	\$291,245.28	-	\$291,245.28

*약정자 : -
 *금주봉헌자 : -
 *총 230세대 중 184세대가 약정해 주셨습니다.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지 사 양 -

◆ 여행자를 위한 안수기도 : 오늘 미사 중

◆ 전례 안내

3월 7일(목) : 성시간

◆ 다음 주 3월 10일은 썸머타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미사시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2차헌금 안내

3월 10일 Catholic Relief Services(해외원조기금)

◆ 사순절 전례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주일 아침미사 전 7시 20분부터
주일 교중미사 전 10시 20분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를 봉헌하고 이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 부활판공성사

사순기간 동안 매 미사 30분전에 보는 모든 성사는 판공
성사입니다.

* 합동판공성사 : 3월 14일(목) 저녁 미사 후

◆ 영어 판공성사

대상 : 주일학교 학생, 교사, 영어권 신자
일시 : 3월 17일 11시~12시
장소 : 교육관 103호

◆ 부활초/꽃 봉헌 받습니다.(사무실)

◆ 부활봉성체

일시 : 3월 21일(목) 오후 2시(사무실로 신청)

◆ 사순피정 안내

일시 : 3월 3일(오늘) 오후 1:30 - 5:30
주제 : 문학과 신앙
강의 : 전동혁 베드로 신부님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주임)
접수 및 참가비 : 천교실, \$10(점심 및 간식 포함)
* 베이비시터 2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사목위원 임명

재정위원 : 최은용 그레고리오
사회복지부 차장 : 이세호 요한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회의실
- 성경공부 : 매월 첫째주일/셋째주 금요일 저녁 7시반
- 기도모임 : 매주일 10시 ~ 10시 40분 1회의실
- * 구역장회의 : 3월 10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프란치스코회 : 3월 10일 교중미사 후 103호실
- * 하상회 : 3월 10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본당 ME 모임

3월 3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북가주 ME 기금마련 골프대회(주관 : 오클랜드)

일시 : 2013년 3월 9일(토) 낮 12시(샷건)
장소 : Lake Chabot G.C
참가비 : \$80/1인당
문의 : 최대연(다니엘) 510-282-2580
최은순(루시아) 510-295-5702

◆ 가톨릭교회 교리서 통독반 모집

시작 : 5월부터
신청 : 3월 24일까지 천교실에서 접수
문의 : 전교부 510-703-7350

◆ 북가주 성령쇄신 봉사자협의회 일일피정

일시 : 3월 16일(토)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장소 : Presentation Center, Los Gatos
주제 :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코린2, 5:7)
강사 : 황선기 마티아 신부님, 최동원 베드로 교육부장
참가대상 : 각 본당 성령기도회 임원, 기도회원 및 전신자
참가비 : \$25
신청 및 문의 : 천종욱 다니엘 510-684-7207

안국학교 소식

- * 3월 17일(일) : 한국어 SAT 모의고사
- * 3월 23일(토) : 교내 구연동화 대회, 교사연수
- * 3월 30일(토) : 휴교(부활절)